1908~1992

불교 문화재 연구문헌 1천여편

조각·탑파양식·서지학자료등 외형 편중
역사·사상성 조명등 질적향상 모색 급선무

불교미술·문화재 연구에 관련된 도서·논문은 1908년을 기점으로 1992년까지 모두 1천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교미술 또는 성보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연구현황은 〈한국불교총람〉등 목록들을 통해 조사된 것.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불상 보살상 신장상 석굴 등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가 23.5%, 불탑 부도 석등 석비 당간지주 등의 탑파(塔婆)에 대한 연구가 19.1%를 차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각종 경판 경·논·소 등을 연구하는 불교서지학 관련 문헌이 23%를 점유해 삼보의 하나인 불법(佛法)에 대한 연구의 활발함도 가늠케 했다.

◇불교미술·문화재 관련문헌(1908~1992년)

분 류	도서·논문 수	비 율
불교조각	234권	23.5%
불교서지학	229권	23.0%
탑파	190권	19.1%
불교공예	131권	13.2%
불화	110권	11.1%
불교미술 일반	55권	5.6%
불교건축	45권	4.5%
계	994권	100%

이밖에 범종 사리장엄품 향로 등의 불교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13.2%, 불·보살화 진영 등의 불화관련 문헌이 11.1%, 가람 유물 유적지 불교미술(사상)사 등 불교미술·문화재 일반에 대한 연구가 5.6%, 불전 전각 사문(寺門) 등 불교건축관련 문헌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성보연구는 주로 양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성보문화재를 양식적인 면과 더불어 내용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박상국 문화재전문위원은 "아직까지 성보연구는 원칙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보의 역사성과 사상성을 조명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축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의 조감도. 이 박물관은 지하 수장고와 지하 통로로 연결된다.

불교유물 4만여점 보존

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
5중감시문·항온·항습처리등 최첨단 시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 지하수장고에는 불교 유물 4만여점을 비롯한 6만여점의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KBS 9시뉴스에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밝혀졌다. 지하수장고는 75년 박정희정권하에 국가기밀시설의 하나인 국가안보회의·비상대각회의 장소로 만들어졌다가, 85년도부터 2년간 수장고로 개조 후 사용해 오던 것.

현재 수장고에는 전시유물 6천여점을 제외한 유형, 재질, 특성별로 분리 보관된 6만여점의 유물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CCTV장치, 30cm 철제금고, 5중 안전문 등의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이중 불교문화재는 절반이 훨씬 넘는 4만여점에 이를 것이란게 유물관리부 관계자의 말이다.

박물관 동쪽 50m 지점에 위치한 1천8백여평 규모의 수장고는 항온·항습 처리 등 과학적 보존처리 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

현 수장고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시 진동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새로 건립되는 조선왕궁 역사박물관을 지하통로로 연결, 왕궁박물관 완공 후 유물을 지하수장고에서 박물관 전시실로 옮길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파손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문화재 정비 국고지원을"

경주시 재정압박, 보존사업 차질우려

경주시등 일선 시군이 문화재보존정비사업을 두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액국비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문화재정비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신라문화권 문화재보존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소실된 사찰과 탑을 복원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은 국가지정문화재에까지 지방비 30%(도비15, 시비15%)를 부담시키고 있는데다 도지정은 도비50% 시비50%, 그밖의 문화재는 전액시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통합이후 재정압박이 심각한 경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액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남고루정비등 19개소에 52억원을 확정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때문에 시자체정비사업계획은 남사리폐복원등 6개소에 겨우 2억원만 투입할 계획이다.

영정조시대 불화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지난 18일 오후2시 동국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영·정조 시대의 미술'이란 주제로 제46회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서 소재구씨(국립중앙박물관)가 '영·정조 시대의 석조미술'을, 김정희교수(원광대)가 '영·정조 시대의 지옥계 불화'를 각각 발표했다.

'불교와 기독교연구' 14집
一圓과 일치운동등 다뤄

미 하와이대 출판부는 최근 영문판 저널 〈불교와 기독교의 연구〉 볼륨14를 발간했다.

이번 호 저널에는 '일원(一圓)과 교회일치운동의 의의'/김복인, '종교적 직접체험의 다양성'/八木誠一, '주체성 없는 의식: 싸르트르의 배신론과 불교의 심'/스티븐 레이록, '정토교 신자의 신앙의식'/武田龍精 등 모두 29편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기사넘쳐 '한국사찰의 주련' 이번주 쉽니다.

苦의 원인과 치료는 어떻게

문 지난 17호 본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한 현직교사의 물음에 대해 스님께서는 '업보라는 생각도, 아픔까지도 내려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으로서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苦의 원인규명이라든가 치유를 위한 바른 생활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확실한 불자)

답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진화의 과정, 즉 해탈 열반을 향한 구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육신을 지녔을 때 만이 아니라 저 미생물에서부터 억겁 윤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느 모습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퇴보하느냐 좀더 진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비유컨대, 가령 풀벌레가 '나도 한번 저 창공을 날아 봤으면'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언젠가는 날짐승의 몸을 받아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만 이해를 돕기위한 빈 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야 더 이를 말이겠습니까?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업과 윤회, 인과의 철칙이란 다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니, 고통이니 따지지 말고 나온 자리에 되 놓아서 녹음테이프를 지우고 되 녹음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고의 원인규명을 통해 바른 지견을 갖추고 생활을 바르게 하는 도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몰락 놓는게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苦란 따지고 보면 나의 진화를 돕는 자비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야 부처님께서 이미 설파하셨 듯이 진작에 내가 지은 업의 산물이지만 업이라는 게 설사 죄업·악업일지라도 그것은 숙명적인 모종의 보복이 아니라 이전 어느 때에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삼독에 물들어 저지른 결과를 이제 바르게 시정하라는 내면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苦는 고통, 불행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숙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수용하여 그 의미를 알아채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한 근본자리, 곧 주인공(공은 空입니다)에 몽땅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그 苦가 어떤 업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절로 알게 될 때가 오고, 그렇게 알고나면 오히려 그 苦가 성숙의 기회임을 감사히 여기게 되며, 그럼으로써 녹음테이프가 재생되듯이 苦는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절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이구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자구 이치로 따지려 할까보아 몰락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 쉽다는 분별마져도 내려 놓고 그대로 믿고 들어가십시요.

그것은 믿음의 힘이요, 힘있는 믿음엔 공덕이 있습니다.

'제법무아'란 무슨 뜻입니까

문 삼법인(三法印)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는데 諸法에는 이름하여 붙일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에 이름할 게 없다면 오늘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며, '나'라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인천시 중구 사동·최재일)

답 항상 하는 얘기 입니다만 누구나 생활하는 중에 할나에 아버지노릇하고 엄마노릇하고, 자식노릇 형제노릇 사위노릇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 '응' 했다가 부인이 '여보'하면 금새 '그래'하면서 순간에 아빠이고 순간에 남편이고 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찰나찰나에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렇게 연방 돌아갑니다.

그럼 어느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할건가요? 쳇바퀴 돌아가듯 걸림없이 그렇게 잘도 돌아가는데,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다 일일이 내가 있다, 내가 했다 하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달다가는 도무지 걸려서 돌아 갈 수 없겠지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요건 이름이 뭐고 어디에 좋고, 뱃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소화되고… 그런 걸 따지면서 먹나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먹었으니까 소화되고 하지 않던가요?

찰나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돌아가니 이름을 붙일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세울 게 없고, 그래서 공했노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름붙여 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양에 걸리고 이름에 걸려서 자꾸 '나'라고 할 어떤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한은 아무리 '제법무아'라고 해도 '제법무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름붙일 게 없다'했는데도 '그러면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질세계의 참모습을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려하기 보다는 물질세계의 겉모습만을 좇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지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없다면 모를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손에 쥐어주셨는데 물질세계의 거죽만보고 걸린다면 어느 세월에 진리를 알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안 보이는 50%의 정신계를 모르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하고, 어디에 붙는가 따지지 마시고 찰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도록 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태국 '불교적 이상사회 주제' 워크샵

진월스님 연기·공생적 생활관계 역설
재덕박사 정신과 물질 균형개발 강조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응카악의 왕사닛 아쉬람에서는 '불교적 이상사회(The Dhammic Society)'를 주제로 한 워크샵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진월스님은 「한국에서 본 대승불교적 이상사회」를 발표했다.

진월스님(U.C. Berkeley대 박사과정)은 뭇 생명들사이의 공생관계와 사회 및 환경조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연기적 존재구조의 인식과, 모든 사람들이 이상사회 실현에 동참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적 이상사회구현을 역설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는 태국의 술락씨는 '가슴 함께하는 머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불교적 방안'을 주제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의 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런 불교적 방법의 추구가 필요하다"며, 그 구체적 예로서 우리의 머리(지성)와 가슴(덕성과 감성)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했다.

영국 신경제협회 연구간사인 재덕박사는 '진취적 불교경제를 향하여'란 주제로 불교를 통한 인간 내면세계의 계발과 함께 물질과 정신의 균형있는 자기만족적 노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새로운 건전한 경제원리로 강조했다.

"고속철 우회·경마장 외곽이전 하라"

'경주보존' 세미나 유적손상 우려…古都보존법 제정 촉구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와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는 지난 18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역사및 문화연구분야 관련 16개 학회와 공동으로 '경주문화보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진홍섭교수(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경주는 중환자입니다'를, 김종철교수(계명대 박물관장)가 '경주개발과 유적보존: 경마장및 고속전철 건설을 중심으로', 박병주교수(홍익대 명예교수)가 '경주 도시개발과 역사적 경관 보전 정비의 문제'를 각각 발표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노선의 경주통과, 경주경마장 건설등의 문제를 비롯, 경주보존에 관한 긴급 또는 장기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제안된 공동건의서는 경주의 옛모습을 보존해야 할 이유와 경주 유적의 현황, 위정자와 경주시민의 인식, 장·단기 대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16개 학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고신라, 통일신라의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장 2천여년에 걸친 문화가 간직돼 온 경주와 그 부근일대는, 유네스코에 의해 아시아의 대표적 역사도시로 연구되어 왔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며 신라문화의 생명을 끊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주지역의 자연환경 파괴와 지하·지상에 있는 유적과 유물의 손상, 경주로의 우회노선은 고속주행에 위배되며, 그러한 노선으로 인한 추가 예산의 낭비를 들어 경주고속전철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마장 후보지의 지하에는 수많은 고대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경주를 유흥도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마장은 외곽지대로 옮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학회는 이밖에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 제정과 신경주 건설, 정부와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한 고도(古都)도시계획 등을 제안했다.

수덕사 보살계 菩薩戒 수계대법회 안내

신춘을 맞이하여 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옵기 앙축하옵니다.

금번 호서 수덕사에서는 만공선사 탄신 제 백십사 주기를 맞이하여 당례를 올리고 보살계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입멸 후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나이까」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날로 계를 파(破)하는 자 많고 지키는 자 적어졌습니다.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는 덕숭총림 방장이신 원담 큰스님과 혜정 큰스님께서 계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선지종찰이며 근세불교의 선풍을 중흥하신 경허·만공 선사의 선맥이 연연상속된 승가(家)의 종찰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불교수행의 가장 큰 공덕이며 불교신행인의 필수조건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대법회에 수희동참하시어 누겁에 쌓인 죄업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뛰어넘어 기쁨 속에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시길 산중대중(山中大衆)이 삼가 합장 발원하나이다.

1995년 3월 일

■일 시 : 1995년 4월 6일 오전 11시(음력 3월 7일)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보살계 동참금 = 2만원 ■접수처 = 수덕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제七교구 본사)
德崇叢林修德寺 住持 金法長 合掌

전 화 : (0458) 37-6565, 37-0071
팩 스 : (0458) 37-0072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등 제 7교구 말사)